

우리民族의 과학기술저력 세계에 과시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盛了 국내외과학기술자 4천여명 참가...尖端科技정보교환

전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 4천여명이 참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대학술제전인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8월 2일부터 보름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끝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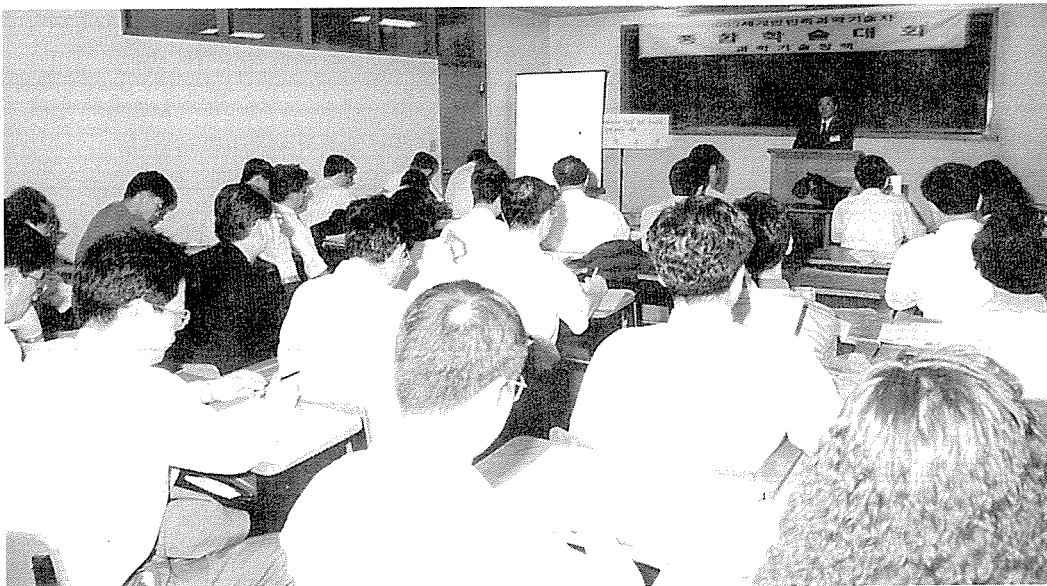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기처,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등의 후원과 한국과학재단, 고려대학교의 협찬을 받아 개최한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미국, 일본, 구라파, 호주, 중국, 독립국가연합 등 세계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과학자 2백 80여명이 참가하여 국내과학자 3천 6백여명과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했다.

이번 대회의 나라별 참가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130명이 참가한 것을 위시하여 일본 54명, 독일 18명, 중국과 구소련에서 각각 16명, 불란서 13명, 캐나다 11명, 영국 8명과 이번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호주에서 11명등 모두 277명이 모국을 방문했다.

범세계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속에 열린 대전엑스포의 공식행사와 함께 개최된 이번 과학기술제전은 8월 2일 재외참가자들의 국내관련기관 간담회 및 기술자문, 현장기술지도 등을 시작으로 7일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임원회의, 9일 발표자등록 및 협의회·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있는 다음, 10일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학술발표

에 들어갔다. 12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도서관에서 실시된 학술발표는 8개분과에서 총36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3~14일 양일간은 재외과학기술자들의 산업시찰과 대전엑스포 93관람들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8월 10일 고려대학교도서관 5층강당에서 金始中과기처장관, 閔寬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李祥羲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白瑩鉉 학술부위원장의 「과학기술인의 신조」 낭독으로 시작, 대회장 개회사·과기처장관의 치사·재외과학대표소개에 이어 卞鍾和 박사(美매사추세츠대 <로웰> 교수)의 「한국과 세계의 과학기술」이란 특별강연이 있었다.



◇ '93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국내외과학자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름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과학한국창조」에 앞장당부

이날 개회식에서 成樂正과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신한국창조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명과 책무가 막중함은 물론 창조적 연구활동이 크게 기대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발맞추어 과총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함과 동시에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과학기술계의 대변자적 역할수행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成회장은 이어 이번 한민족학술대회에 북한과학기술자를 초청했으나 회답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세계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金始中과기처장관은 지사를 통해 『우리민족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과학기술인들은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과학기술력 배양을 통해 민족의 밝은 장래를 개척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과학한국창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金장관은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최신 학술이론과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과학기술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8개分科서 논문 369편 발표

개회식에 이어 12일까지 3일간 실시된 학술발표에서는 △기초과학분과(수학/통계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전기·전자·정보통신분과(컴퓨터/통

신/전자/전기) △고분자·재료·화공분과(고분자/금속/요업/화공) △기계·항공·산업공학분과(기계/산업공학/항공/조선) △환경·교통산업분과(도시 및 교통계획/환경) △토목·건축분과(토목/건축) △농학·식품분과(식품/축산학/임학/농학) △의·약학분과(의학/약학)와 특별세션으로 고분자, 도시 및 교통계획, 과학기술정책 분야등에서 모두 369편의 최신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에서는 3년전의 지난대회와는 달리 일반학술논문발표뿐만 아니라 각분과별·과제별로 재외과학기술자들의 특별강연(22편)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책·교통 및 환경, 고분자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국내연구개발의욕의 고취는 물론 산업기술개발촉진과 국제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외과학자 유치에 한몫

한편 이번대회는 해외의 우리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창구역할도 특특히 한몫을 했는데 과총이 대회기간동안 설치·운영한 「재외과학기술자유치센터」에는 삼성그룹, 원자력연구소등 국내기업관계자 및 연구소요원들이 직접 나와 관련분야의 동포과학기술자들과 취업알선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상담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유치센터를 통해 345명의 재외동포 과학자가 446건의 활동실적을 보였는데 105명의 과학자가 168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가했으며 간담 136건, 기술지도 및 자문 69건, 취업협의 67건, 공동연구 6건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총은 학술대회기간중인 8월 9일 오전 타이호텔 텍스룸에서 지난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제2차총회를 개최했다.

成樂正동협의회회의장(과총회장)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연구인력 '브레인 풀' 운영시안 △재외과협인력 데이터베이스구축 △차기종합학술대회 해외개최방안등이 논의됐다. 또한 이자리에 참석한 재외과협대표들은 2천년대 복지사회건설과 신한국창조의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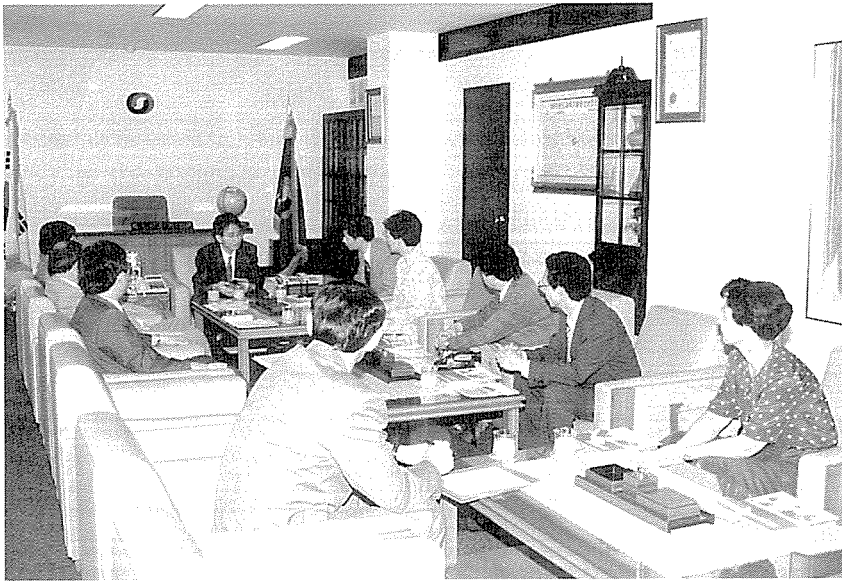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회기간중 재외과학기술자와 동반가족들은 학술발표외에도 연구·교육기관 견학 및 산업시찰, 가족문화관광등을 통해 조국의 변모하는 참 모습을 돌아보았다. 1박2일에 걸친 산업시찰로 경인 및 충청지역의 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를 돌아보고 특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대전엑스포 '93현장을 관람하면서 우리국력의 성장모습에 감격해 하기도 했다.

한편 8월 12일에는 成樂正상임부회장을 비롯 대회임원진과 재미·재구 과기협임원등 관계인사와 사무처관계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리셉션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成樂正과총회장은 이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적극 협조한 金孝根재미과협회장등 재외과협대표와 고려대 관계자등 10여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재외과협대표 일동은 과총 成樂正회장, 鄭助英상임부회장, 李傑삼사무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8월16일에는 金泳三대통령이 金孝根 재미과협회장등 이번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과학기술자 및 국내관계자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하며 과학한국의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韓 · 中 과학기술 교류협의

中國上海과협 대표단일행 科總방문 자료교환 · 인적교류등 교류추진희망



◇中國上海과학기술협회 錢雪元부주석 일행이 8월30일 과총을 예방, 鄭助英 상임 부회장등 과총 사무처간부들과 과학기술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鄭助英 상임부회장은 8월 30일 中國上海과학기술협회(SAST) 錢雪元부주석일행의 예방을 받고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상해과협대표단은 특히 과총의 조직 및 사업내용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학저술인협회, 과학교육학회등 과총산하학회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과총과의 과학기술관련자료교환, 인적교류등 과학기술교류 추진을 희망했다.

이날 중국측에서는 SAST 曹培新국제부협조인, 莊英傑상해과학보급센터장과 상해시 인민정부경제위원회 과학기술처 周月英주임과원, 상해포장기술협회 劉維亞사무이사, 과총에서는 李傑삼사무차장, 金鍾倫진흥부장이 배석했다.

155개의 각종전문학회와 20여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해과협의 대표단은 지난 8월27일 삼성물산의 초청으로 내한, 국내기업 및 과학기술 관련기관을 돌아보고 9월6일 출국했다.

在中한국科技協에 科總, 전자타자기기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월30일 재중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姜貴吉)에 시가 34만원 상당의 전자타자기(모델명 SILVERREED EZ22M) 1대를 기증했다.

이날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은 과총을 방문한 金東熙재중과협 비서장에게 직접 타자기를 전달하고 앞으로 과총과 재중과협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鄭助英 과총 상임부회장(좌측)이 金東熙 비서장에게 타자기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재중과협

”과학기술최신정보교류로 新韓國창조에 동참한다”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共同協, 공동선언문 채택



○ 8월 9일 타워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의 제2차 총회 전경

전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협의체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회장 成藥正)는 8월30일 2천년대 복지사회건설과 신한국창조의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5월27일 과총 주도하에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결성된 공동협의회는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기간중인 지난 8월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각 계의 과협대표단의 의견을 조정하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 협의회는 과총을 비롯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독립국가연합, 호주 등지의 한국과학기술자협회 15개 회원단체를 포용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과총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공동선언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4개항 공동선언문

지금 세계는 과거의 이념적 냉전구도를 벗어나서 경제·무역·기술전쟁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의 보호무역경향과 과학기술장벽이 날로 두텁게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3년 8월 2일 부터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총회」와 「1993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기간중 2000년대 복지사회건설과 신한국창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진지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우리들은 조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한국창조」의 숭고한 역사적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외과학기술

인으로서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최선을 다해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1.우리들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의 대외경쟁력 배양이 국력신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유능하고 우수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1.우리들은 과학기술진흥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천명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정보교류를 증대시키면서 국내관련분야와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우리들은 북한도 한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의 장인 「우리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3년 8월 30일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